



회원사 소식



☐ 두산그룹 주요 5개사 1,760개 협력사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네트워크론 시행 등 금융지원, 자금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두산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두산과 협력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 또한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가야 한다.”

두산 박용성 회장은 지난 11월 12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두산의 협력사 대표, 두산의 5개 계열사 사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두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협력사와 상생경영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두산이 이번에 하도급공정거래협약체결에 참여한 계열사는 (주)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두산메카텍 5개사이며, 협력사는 총 1,760개사이다.

두산은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합리적 단가산정 등을 위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 등록,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이행하게 된다.

특히, 두산은 3,450억 원 규모의 네트워크론 시행, 사내협력사의 경우 100% 현금결제 적용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협력사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교육 훈련 지원 등도 병행하며 이러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협력사 지원전담부서도 설치한다.

박용성 회장은 “상생협력팀 신설 등을 통한 상생협력 노력을 시스템화 하고 협력업체와의 국산화 공동개발 등을 통한 상생협력 문화 확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의 적극적인 수용·준수를 통한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에 동참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 협력사와 '상생협력 페스티벌' 개최

24개 우수 협력사 시상, 사례 발표를 통한 협력사간 벤치마킹 기회 제공



삼성전자가 지난 11월 20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이윤우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 70여명, 이세용 협성회 회장(이랜택 대표) 등 주요 협력사 대표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상생협력 페스티벌'은 삼성전자가 협력사와 상생 협력을 통한 한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지금까지 '협력사 혁신우수사례 발표' 위주의 행사에서 탈피해 올

해부터는 '상생 파트너십과 미래지향 상생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1부 행사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경영 방안, 대·중소기업 상생전략을 주제로 각 주제별 2개의 테마, 총 6편의 강의 구성으로 된 상생 경영 세미나 개최를 통해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2부 행사에서는 상생협력 전략 발표와 제조, 기술, 원가, 프로세스 등 혁신활동으로 상생협력의 귀감이 되는 총 24개사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 전시 등을 실시했다.

대상은 삼성의 크리스탈 로즈 디자인 LCD TV 금형 개발을 통해 디자인 차별화를 가능케 한 에이테크솔루션, 제일정공, 영신공업사가 공동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또한 협력사 요구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지원, 의사소통 채널 구축, 사업방향과 기술동향 공유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다.

협성회 이세용 회장은 축사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는 상생경영에 달려있으며, 협력사가 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 진정한 의미의 상생경영이 꽃피게 된다"고 말하고 "현재의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 서로 윈-윈 하는 미래지향의 상생협력을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이윤우 부회장도 격려사를 통해 "우리 모두 위기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낭비 제거를 통해 상생 차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함께 앞으로 나가자"고 역설했다.



LG 주요 6개사, 올해부터 100% 현금성 결제 시행

하도급 협력회사 현금성 결제 및 금융지원 확대 등 상생협력 강화



LG가 하도급 협력회사에 대해 현금성 결제 및 금융지원 등 상생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LG는 지난 11월 24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LG전자·LG화학·LG이노텍·LG생활건강·LG CNS·LG엔시스 등 주요 6개사가 'LG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용 LG전자 부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허영호 LG이노텍 사장, 차석용 LG생활건강 사장, 신재철 LG CNS 사장, 정태수 LG엔시스 사장 등 6개사 CEO들이 참석해 협력회사 대표들과 명문화된 상생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상열 대한상공 회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체계를 지원했다.

LG 6개사는 이날 1,700여개 하도급 협력회사에 올해부터 100% 현금성 결제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이들 회사는 최근 글로벌 자금경색에 따른 하도급 협력회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협력펀드를 통한 직접대출 및 금융기관 여신 지원 등 금융지원 규모를 올해 1,750억 원에서 2009년 3,430억 원으로 96%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LG는 협력회사와 미래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품질·기술개발 지원, 인력·교육 지원, 경영지원 등 그룹차원의 5대 상생지원 체제도 정립했다.

이를 위해 LG는 상생협력펀드·금융기관 통한 여신 제공 등 금융지원, 현금성 결제 확대 시행 및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대금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투자비 지원과 품질보증체제 구축 지원 등 품질·기술개발 지원, 중견인력 파견과 안전·기술·혁신분야에서의 무상 교육 확대 등 인력·교육 지원, 친환경경영 및 혁신활동 컨설팅 지원 등 경영지원의 5가지 상생 테마를 중심으로 협력회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지원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LG는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공정한 계약 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불공정한 거래의 사전 예방 등 3대 가이드라인을 상생경영의 주요한 원칙으로 채택했다.

이번 LG의 하도급 협력회사 지원은 최근 세계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협력회사를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명문화함으로써 협력회사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반석 LG화학 부회장은 환영사 통해 "LG의 진정한 경쟁력은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에서 창출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LG는 협력회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강조했다.

▣ 웅진코웨이, 기업체 최초 ‘소비자의 날’ 대통령 표창

고객 불만 최소화 위해 시스템 개선 및 CCMS 인식 확산 위한 대외활동 전개



웅진코웨이가 기업체로서는 최초로 ‘소비자의 날’ 정부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12월 3일 제13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원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홍준기 웅진코웨이 사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제1회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소비자 불만 자율관리 시스템)인증기업이기도 한 웅진코웨이는, 그 동안 고객 불만 최소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CCMS 인식 확산을 위한 대외활동을 전개하는 등 소비자주권 실현에 앞장서 왔다.

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로부터 우수기업으로 추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

소비자의 편의 및 불만 최소화를 위한 웅진코웨이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One Stop 고객 불만 처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 콜센터 야간서비스 시간 확대, 온라인 사이트 일원화를 통한 고객 불만 통합관리 등이 있는데, 특히 온라인의 경우 VOC(Voice of Customer)를 통합해 24시간 내에 고객에게 회신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웅진코웨이 홍준기 대표는 “소비자주권 실현은 기업경영에 있어 기본이 되는 활동이기에 소비자에 의해 평가된 오늘의 수상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표창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비자권의 개선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웅진코웨이 측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그간 웅진코웨이가 소비자를 생각하는 기업으로서 많은 노력을 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며 “2007년까지 공공기관 등 광역자치단체가 줄곧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데 반해, 올해는 웅진코웨이가 기업체 차원에서 단독으로 수상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더욱 뜻 깊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소비자의 날인만큼 ‘역량 있는 소비자’와 책임지는 기업이라는 올해의 주제를 강조하면서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소비자단체장, 소비자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소비자의 권한과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많은 조언이 잇따랐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의 어려운 경제 난국을 헤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 양질의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기업들간 품질 및



□ 포스코 전 출자사와 함께 중소기업과의 상생 다짐

국내투자규모 6조원으로 늘려 성장동력 확보 ...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지원



포스코가 출자사들과 함께 '범포스코 상생경영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선포식'을 개최하고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다짐했다.

선포식에서 포스코와 출자사들은 '범포스코 상생협력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12월 11일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선포식에는 이구택 회장을 비롯해 정준양 포스코건설 사장 등 12개 출자사 임직원, 140여 개 중소협력기업 대표 등 관계자와 백용호 공정거래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동근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는 중국·일본·유럽 등 세계 우수 철강사들이 감산에 나서는 등 철강업계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3조 4,000억 원 수준이었던 국내투자 규모를 내년 사상 최대인 6조원 규모로 늘림으로써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존에 조성한 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펀드 외에 6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 외주파트너사들이 노후설비 교체 및 신규 도입 시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출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100% 현금성 결제(현금+구매카드)를 시행하고 있는 출자사들에 대해서도 현금 지불비율을 확대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원천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스코·포스텍(포항공대) 등 6개 기관의 박사급 전문 인력 600여 명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청과 100억 원 규모의 민·관 공동 R&D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들이 장기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 제품 육성을 위해 우수공급사 제품을 '월드 베스트 월드 퍼스트(World Best World First)' 품목으로 선정해 기술자문은 물론, 장기 구매 보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원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포스코는 이러한 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존의 상생협력팀을 확대 개편해 생산기술부문장(COO) 직속의 상생협력실천사무국을 신설했다.

한편, 이구택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포스코와 협력기업들이 힘을 모아 헤쳐나간다면 세계 경제 침체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쟁법 전문 '엘리트 펌'에 김앤장·화우·울촌 선정

태평양·광장·세종은 공정거래법 분야 추천 로펌 선정

세계적인 권위의 경쟁법 전문 잡지인 '글로벌 콤포티션 리뷰(Global Competition Review, GCR)' 2008년 10월 호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 울촌을 한국의 대표적인 경쟁법 전문 '엘리트 펌(Elite Firm)'으로 선정했다.

GCR은 최근 급성장한 한국의 공정거래법의 법적 환경 조사 및 공정위와 로펌에 대해 특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특집 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GCR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 세계 로펌들을 대상으로 매년 선정하는 '경쟁법 관련 100대 로펌(GCR 100) 2009년판'에 법무법인 화우를 처음으로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공정거래법 분야의 대표적 엘리트 로펌으로 선정된 김앤장과 울촌은 매년 100대 로펌으로 선정돼 왔으며, 화우가 새롭게 선정된 것.

그리고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 세종은 공정거래법 분야 추천(Highly Re-commended) 로펌으로 선정됐다.

한편,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GCR은 공정거래법 및 지적재산권에 있어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적 전문 정보서비스 회사다.

▣ 삼성물산, CJ제일제당 등 11개사 CCMS 인증 수여

공정위, 2009년부터 2년간 인센티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CCMS 인증신청 기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11개 기업에 대해 인증을 수여하고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간 공정위에서 마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물산, CJ제일제당, 유한킴벌리, 케이티, 현대약품, 현대홈쇼핑, 더클래스호성, 매일유업, 신한일전기, 코리아나화장품, 한국야쿠르트 등 11개 인증기업에 대해 지난 12월 11일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CCMS 인증수여식을 개최했다.

기업이 소비자불만 피해 예방과 신속한 구제를 위해 기업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해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인 CCMS의 인증수여식은, 2007년 상반기부터 시작해 4회째 개최되어 그동안 18개 기업이 인증을 부여받았다.

CCMS 인증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평가기관인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서 1년에 2회 실시하는 평가와 공정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공정위에 신고 되는 소비자법령(표시광고법, 방판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하도록 통보하는 신고사건 자율처리와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 제재수준 경감, 소비자의 날 및 공정거래의 날에 우수기업 포상, 그리고 CCMS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등이 있다.